

공간 이동과 재일코리안의 정주와 건강*

—『大阪と半島人』와 『民衆時報』를 통한
오사카(쓰루하시(鶴橋))의 1930년대를 중심으로—

김 인 덕**

- I. 머리말: 쓰루하시의 공간성과 재일코리안의 건강
- II. 건강의 전사(前史) 도항과 정주
- III. 재일코리안의 공간과 음식, 건강
- IV. 맺음말: 재일코리안의 일상과 건강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30년대 오사카의 쓰루하시라는 공간에서 도항 이후 재일코리안의 건강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大阪と半島人』, 『民衆時報』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은 제국의 통제 아래 도항했고, 그들은 개별적으로 정착하다가 집단화되었고 정주의 공간을 마련,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부에 조선촌을 형성해 갔다. 대표적인 정주 공간 오사카 쓰루하시는 이가이노와 함께 정주 재일코리안의 조선촌이 되었고, 일상의 건강이 유지되는 공간이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518)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둘째,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일본 사회 속에서 존재한 일상의 반영이었다. 동시에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일본에서의 건강, 건강정책과 유관하다. 문제는 차별의 대상으로 재일코리안은 공간적 제한의 존재로 그 모습은 소수자로 귀결되어 절대다수가 질병에 노출되었다.

셋째, 『大阪と半島人』, 『民衆時報』를 중심으로 본 재일코리안의 1930년대 일상의 모습 속에는 건강의 다양한 요소가 존재했다.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존재한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모습, 재일코리안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적 규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의학적인 수치를 통한 재일코리안의 1930년대 모습은 ‘양호’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제국의 통치 아래 도향했던 조선인의 일본 내 존재는 왜곡과 좌절의 틀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쓰루하시라는 공간 속 정주하고 삶을 영위한 재일코리안에게 건강은 부차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생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1930년대 쓰루하시 재일코리안의 정주와 건강은 현실의 구조가 작용하는 지점이었다. 일제의 통치와 조선인 사회의 구조가 중층적인 요소였음은 물론이다. 그 가운데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일상 속에서 유지되었다. 실제로 재일코리안은 병원과 약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를 시도했다.

본고는 건강을 유지한 재일코리안의 모습을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확인했다. 재일코리안은 고향 사람이 함께 하는 삶의 안정감, 조선식 먹거리를 통한 즐거움, 막걸리를 통한 행복함, 적극적인 질병 치료하기, 정신적 스트레스의 대중적 치료 등 여러 형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일본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 주제어

재일코리안, 1930년대, 건강, 쓰루하시, 『오사카와 반도인』, 『민중시보』

I. 머리말: 쓰루하시의 공간성과 재일코리안의 건강

근대사회 속 건강의 구조를 논증하는 것은 근대사회 이해의 중요한 새로운 통로에 대한 탐색이다.¹⁾ 실제로 근대사회의 권력은 생명에 대한 관심, 인간을 중심에 두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근대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권력의 대상물만이 아니었다. 근대사회의 주인공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람로 중심인 것이다. 이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존재의 기본이다. 이런 사람의 건강은 존재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사람에게 질병은 경험한 사람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²⁾ 실제로 개념으로서의 질병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서 정의된다. 그리고 질병은 공간성을 다분히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³⁾

국제간의 이동이 많아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도항의학이 발생했다.⁴⁾ 도항의학이란 국제간의 사람의 이동으로 건강문제와 질병을 취급하는 의학이다. 이른바 평화로운 시대의 해외여행의 붐에 따른 현상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런 논점은 일제강점기의 재일코리안의 이동에도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제국의 통치구조 속 식민지민의 제국으로의 이동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동반하고 진행되어 갔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⁵⁾의 개념은 일상의 문제이다. 일상의 건강은 한국의

1) 고미숙, 『위생의 시대』, 북드라마, 2014, 31쪽.

2)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383쪽.

3) 앞의 책, 25쪽.

4) 李節子, 『医療通譯と保健医療福祉』, 杏林書院, 2015, 23~24쪽.

5) 인간은 모두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이 건강은 평안한 상태로, 1948년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장에서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경우 일제강점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도 일정하게는 관통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집단이 재일코리안⁶⁾이다. 재일코리안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산물로 지금도 일본에 사는 한민족을 통칭한다. 이들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도 건강한 일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일본사회에서는 재일코리안의 건강 문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선’의 사망을 가운데 2013년의 주요한 사인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이 전체 6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령화에 따라 ‘폐렴’이 증가하고 있다.⁷⁾

재일코리안에게 공간이 갖는 의미는 일상 가운데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간으로서의 오사카(大阪) 쓰루하시(鶴橋)지역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특히 건강과 관련하여 공간의 이동이 갖는 요소를 파악하는데 절대적인지도 모른다.⁸⁾

본 연구는 왜 건강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건강은 일상을 통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건강이 과연 부차적인가, 건강이 곧 생명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일상의 건강을 재일코리안의 공간에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30년대 오사카의 쓰루하시 지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식민지시대의 역사성에 기초한 재일코리안의 공간 이동에 주목한다. 일제의 도항의 조건, 그리고 도항의 시기별 경향성과 일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규정하였다.(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www.who.int) 참조.)

- 6) 본고는 일본에 사는 한민족을 통칭하여 ‘재일코리안’으로 칭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일조선인’과 ‘재일한인’, ‘조선인’ 등의 용어도 채용한다.
- 7) 아울러 ‘유아사망’ ‘결핵’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런 현상들은 일본인의 경향성과 유사하다고 한다.(李節子, 『医療通譯と保健医療福祉』, 42쪽)
- 8) 1930년대 오사카 재일코리안 의료 건강 관련 연구로는 오사카조선무산자진료소의 설립에서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外村大, 「大阪朝鮮無産者診療所の闘い」, 『在日朝鮮人史研究』 20, 1990. 10.). 여기에서 도노 무라 마사루(外村大)는 193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의 주거, 질병 관련 일반 상황과 관련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상의 식민지 출신의 내지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건강을 생각해 보겠다. 과연 그들은 비위생적인 존재였을까? 왜곡된 이런 시선은 재일코리안의 건강한 삶에 부정적 장치가 되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1930년대 쓰루하시의 일상에 대한 재일코리안 자신이 직접 기록한 자료인 『大阪と半島人』(高權三, 東光商會書籍部, 昭和13年), 『民衆時報』⁹⁾를 중심으로 1930년대 재일코리안의 일상 속 건강 보기를 시도하겠다.¹⁰⁾

II. 건강의 전사(前史) 도향과 정주

1. 제도화된 도향

일제강점기 재일코리안의 일본 도향은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직 도일,’ 둘째, 구직자의 가족으로서 구직자와 ‘동반 도일’하거나 구직자가 취업을 한 후에 초청하여 도일하는 ‘가족 동거 도일,’ 셋째, 일본에서 진학 또는 면학을 목적으로 한 ‘유학 도일,’ 넷째, 뚜렷한 목적 없이 경험삼아 도일하는 ‘만연 도일,’ 다섯째, 총동원 정책으로 일본의 전쟁에 동원된 ‘집단 도향’ 등이다.¹¹⁾

고베(神戸)시 사회과는 1927년에 간행한 『在半半島民族の現状』라는 사

9) 1936년 오사카에서 창간한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다. 대표는 김문준으로 그가 죽자 이신형이 뒤를 이었다. 27호로 폐간되었다(김인덕, 「1930년대 중반 오사카 재일조선인의 삶과 상호부조-『민중시보』의 기사를 중심으로-」,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소명출판사, 2016, 참조).

10) 두 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을 주로 참조. 도노무라 마사루 저, 신유원·김인덕 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김인덕, 「재일코리안의 민속·생활문화의 변용」, 『재일코리안의 생활 문화와 변용』, 선인, 2014; 김인덕, 「1930년대 중반 오사카 재일조선인의 삶과 상호부조-『民衆時報』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용삼 외,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소명출판사, 2016.

11) 김광열, 『한인의 일본 이주사 연구』, 논형, 2010, 72쪽.

회조사 보고서에서 재일코리안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인식을 정리한 기술이 있다.

위생사상에 관해서 묻자니,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선인은 비위생적인 민족이라고 예기치 않게 대답할 정도로 으레 더럽기 마련이다. 이조 다년의 비정이 이렇게까지 민족적 추락을 불러온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¹²⁾

이런 모습이 당시 재일코리안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다.¹³⁾ 재일코리안의 모습을 더러움으로 정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어 있다. 이들의 도항은 일제의 필요의 산물로, 물론 거기에서 멈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사료상으로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본격적인 제도화된 틀로 재일코리안 도항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 (1) 1929년 8월 3일 경보국장 통첩 「한인 노동자의 증명에 관한 건」
- (2) 『조선일보』 1929년 4월 29일 김경중(金敬中)의 동포들의 도항 문제에 대한 발언
- (3) 1934년 10월 30일 「한인 이주 대책 요목」
- (4) 1938년 3월 23일 「조선인의 내지도항 제한에 관한 건」
- (5) 1938년 12월 16일 「조선인 노동자 내지 도항 단속에 관한 건」

첫째, 1929년 8월 3일 경보국장은 통첩 「한인 노동자의 증명에 관한 건」을 송부했다. 그것은 일시귀선증명서(一時歸鮮證明書)의 발행에 관한 내용이었다.¹⁴⁾ 일본 내 각 지방 자치단체장 앞으로 송부한 경보국장은 일본의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재일코리안을 대상으로 직장의 휴업

12) 神戸市社會科, 『在神半島民族の現状』, 1927 참조.

13) 도노무라 마사루 저, 신유원·김인덕 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165쪽.

14) 이전에 여행증명서 제도의 발령과 여행증명서 제도를 철폐한다는 ‘부령(府令) 제153호’ 등도 발령되었던 역사가 있다(<동아일보>, 1922년 12월 12일).

및 휴가를 이용하여 일시 귀향하는 경우 일시귀선증명서라는 것을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서 발행했다.¹⁵⁾ 이후 일제는 각종 형태로 조선인의 도항을 제도적으로 장악하고 제국의 통치에 필요에 따라 조절했다.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은 사실 재일코리안, 즉 조선인의 몫이었다.

둘째, 당시 한신(阪神)소비조합장이었던 김정중(金敬中)은 다음과 같이 도항, 일시귀선증명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의 난문은 도항 증명과 일시 귀선 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만 도항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 문자대로 일시귀선증명이라고 한다면 조선에 갔다 오려면 그것이라도 발행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여간 해서 발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귀선증명 없이는 조선에 가도 돌아 오지 못하고, 보통 귀선 증명을 발행받고자 해도, 10일 정도 전부터 수배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여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결혼식이 있다든지 등의 일시 귀향이나 업무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할 수 없이 증명 없이 가서 처자를 여기에 두고 간 사람이 4, 5개월도 증명이 없다고 돌아오지 못하여, 십년 가까이 노력하여 겨우 상공업이나 공장 등에 쌓여진 신용도 일조에 물거품이 되어버려 피눈물을 삼킨다든지, 또한 폐가하여 유랑을 하게 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원문 그대로 : 필자)¹⁶⁾

문제는 이런 그의 관점은 일제의 시점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제의 필요에 따른 식민지 사람 노동력의 통제만이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1934년 10월 30일 일본의 정부 각의에서 「한인 이주 대책의 건」을 심의하고 재일코리안의 도항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방침으로서 「한인 이주 대책 요목」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¹⁷⁾ 여기에서는 1) 조선 내

15) 김광열, 『한인의 일본 이주사 연구』, 84쪽.

16) <조선일보>, 1929년 4월 29일.

에서 ‘한인’을 안주시킬 조치를 강구할 것, 2) ‘한인’을 만주 및 조선북부에 이주시킬 조치를 강구할 것, 3) ‘한인’의 내지 도항을 한층 감소시킬 것, 4) 내지에서 ‘한인’의 지도 향상 및 그 융화를 도모할 것이었다.¹⁸⁾ 제도화된 재일코리안의 도항은 일제의 전쟁 준비에 자연스럽게 함께 해 갔다.

넷째, 1938년 3월 23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각각 척무대신과 척무성 조선부장 앞으로 「조선인의 내지도항 제한에 관한 건」이라는 전문을 송부했다. 그 내용은, 내무성 측에 전달해 달라고 하는 의뢰였다.¹⁹⁾ 1938년 12월 16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각도의 경찰부장 및 일본 특파원 앞으로 「조선인 노동자 내지 도항 단속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송달하여, 양측 당국자들의 협의 하에 만들어진 새로운 예규를 실행하라고 전달하고 했다. 동시에 1936년의 예규는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²⁰⁾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면서 일제는 전면적인 전시 체제에 돌입하였다. 1939년 7월에는 ‘제1차 노무동원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²¹⁾ 이후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가 제도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료와 함께 주목되는 시점이 1923년 9월과 1925년 10월, 그리고 1928년 5월이다. 1923년 9월 초,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지방 일원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에게 조선인의 도항을 최대한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다.²²⁾ 그리고 내무성 경보국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원래의 현

17) 「朝鮮人移住対策要目」,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3, 三一書房, 1975, 12쪽.

18) 이 가운데 (4) 내지에서 한인의 지도 향상 및 그 융화를 도모할 것’에는 재일 코리안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도 확인된다. 첫째, ‘한인’ 보호 단체를 통일 및 강화할 것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지도, 장려 및 감독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둘째, ‘한인’ 밀집 지대의 보안 위생 기타 생활 상태를 개선 향상하고자 도모할 것. 셋째, ‘한인’을 지도 교화하여 내지에 동화시킬 것과 같이 조선인 위생을 통한 통제가 도모되었다.

19) 「朝鮮人ノ内地渡航制限ニ関スル件」,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3, 16~17쪽.

20)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3, 19쪽.

21) 김광열, 『한인의 일본 이주사 연구』, 117쪽.

안이었던 구직 목적의 도일자를 규제하고자 1925년 10월부터 새로운 제한 조건을 실시하였다.²³⁾ 그리고 1928년 도항 억제제를 위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5월 15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이케가미 시로(池上四郎)는 ‘면사무소에서 경찰주재소와 연락하여 조사한 후에 도항허가증을 발부’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재일코리안의 발생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정식 도항의 길을 통해서였다. 물론 밀항을 통한 도항도 또 다른 방법이였다.²⁵⁾ 조선인의 도항은 일제의 제도 속에서 구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도항의 정치는 위생과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더러움’, ‘도항의 단속’, ‘몰핀’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되어졌다.

실제로 도항은 조선과 또 다른 트라우마의 시작으로 재일코리안 삶의 주요한 결정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도항은 전후 인양으로 인한 이

22) 山脇啓造, 『近代日本の外国人労働者問題』, 明治学院国際平和研究所, 1993, 135~139쪽.

2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허가 노동자 모집에 응하여 도항하는 자, 둘째, 일본에서 취직이 불확실한 자, 셋째, 일본어를 모르는 자, 넷째, 필요한 여비 외에 소지금 10엔 이하인 자, 다섯째, 모르핀 환자 등은 도항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内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 1930, 1203쪽).

24) <동아일보>, 1928년 5월 17일.

25) 일제 통계 하에서 조선인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도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서류 수속이 복잡해지자 도일하려는 조선인들은 첫째, 다른 사람의 신분증 명서를 사용하거나, 둘째, 저금통장을 위조하거나, 셋째, 서류를 가짜로 만드는 등의 방법을 감행했다. 그리고 밀항했다.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조선인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요구는 필연적으로 서로 모순되었고, 여기서 다량의 불법이주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밀항브로커를 통하여거나 선박을 매수하여 도일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매달 수백 명의 불법이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추산했고, 경남 경찰국은 조선인 이주의 3.2%가 불법이라고 했다. 밀항은 정기선박에 숨어들어가거나, 화물과 또한 밀항주선자의 배편으로 이루어졌다. 도일이 제한된 1925년부터 1931년 3월말까지 밀항 발각자수는 556건 3,839명이였다. 이러한 밀항취제의 목적은 자본으로 유용한 노동력의 도입을 인정하고 일본의 통계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와 노동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소위 사상분자 등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인 노동자 선별도입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은 물론이다(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6, 15쪽).

중적 트라우마를 당하는 기점이기도 했다.

2. 재일코리안의 정주와 건강과 일상

재일코리안이 사는 공간은 일본 전역에 상존하고 있다. 이를 조선촌, 코리아타운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역사성이 가장 강한 공간으로 오사카 이쿠노 지역의 조선촌을 들 수 있다. 이쿠노 지역의 재일코리안의 집단 거주지는 조선시장이 있는 이카이노(猪飼野)라는 곳이다. 즉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미유키모리(御幸森)상점가로 서쪽의 미유키모리신사(御幸森神社)에서 동쪽의 신히라노가와(新平野川)까지 동서로 약 500m에 걸친 가로변에 자리하는 곳이다.²⁶⁾

이쿠노 지역 코리아타운은 돼지 삶는 냄새, 마늘, 김치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냄새가 나서 ‘더럽다’, ‘냄새가 난다’, ‘어둡다’라는 것이 이미지였다.²⁷⁾ 위생이 철저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기 힘든 공간이 코리아타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오사카시는 조선인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²⁸⁾ 히가시고바시초(東小橋町)의 조선촌 형성의 역사는 190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한다.²⁹⁾ 1907년 히가시고바시초 157번지에 조선촌이 건설되어, 점차 메리야스공장 부근보다 발전했다.³⁰⁾ 1938년 히가시나리구의 히가시고바시초의 조선촌은 1938년 현재 55호, 585명 거주했다. 오래된 나가야(長屋)를 빌어서 형성되었던 역사가 있다.³¹⁾ 이렇게 시작된 오사카

26) 高贊侑, 「朝鮮市場からコリアタウンへ」, 猪飼野の歴史と文化を考える會 編, 『ニッポン猪飼野ものがたり』, 批評社, 2011, 336쪽.

27) 고정자·손미경, 「한국문화 발신지로서의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글로벌학문콘텐츠』 5, 2010, 108쪽.

28) 鄭鴉英, 「路地裏から発信する文化」, 『環』 11, 2002年 秋, 267쪽.

29) 大阪市社會部, 『鶴橋中本方面に於ける居住者の生活狀況』, 1928.12, 6쪽.

30) 大阪市社會部, 「本市に於ける朝鮮人の生活概況(1929)」,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2, 三一書房, 1975, 1036~1043쪽.

히가시나리구 조선촌의 1930년대 당시의 일상의 모습을 보자.

(1) 「조선시장 한국문화 발신자로서의 大阪 生野區 코리아타운」, 『朝日クラブ』, 1933년: 2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 이 지역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베, 교토 방면의 조선인들에게도 유명하며 …… 2년 정도 전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씩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그들의 애호식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며, 지금은 매일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번창한 곳이다.

(2) 함상훈, “상공의 도시 오사카”, 〈조선일보〉, 1939년 5월 6일: 그들은 부락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고, 그 생활방식은 전부 조선에서 하던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무당, 점쟁이도 있는가 하면, 약국, 반대떡, 순대를 파는 곳이 있고, 공장, 의원, 포목점 등이 있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선인 부락 중 한 곳인 이카이노초를 한 바퀴 돌았는데, 시장이 열려 있고, 두부, 무, 배추, 삶은 순대, 콩나물 등도 조선옷을 입은 조선부인들이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광복산, “백만도항동포생활보고②”, 〈조선일보〉, 1939년 7월 6일: 기자가 실제로 답사한 히가시나리구 이카이노초의 조선인시장은 조선인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만 200호, 여기에서는 명태, 고춧가루 등의 식료품이 있는가 하면, 비녀, 가락지, 심지어는 혼례용품인 족두리까지 놓여 있었다. 한약방도 여기저기 있고, 어떤 젊은 여성은 「毛紗」를 사고팔고 있었다. 어디를 보더라도 고향 생활의 연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오사카 쓰루하시 일대³²⁾는 민족적 수요에 맞춘 다양한 물자를 다루는 시장이 있었다. 그리고 각종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선인이 경영하는 공장이 존재했다. 이곳의 공간성이 갖는

31) 樋口雄一, 「在日朝鮮人論考」, 『近代民衆の記録-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 1978, 551~552쪽.

32) 이하는 이카이노를 포괄해서 사용한다.

유의미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카이노는 조선인의 문화, 생활공간이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살았다. 당시 여기에서는 ‘우리말 조선어’를 사용했다. 아동의 경우 대부분은 일본말을 하면서 놀았던 것도 사실이다.³³⁾ 이런 현상과 함께 재일코리안은 존재가 중요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생활 속에 미신이 뿌리 깊어서 점쟁이와 무당이 성업을 이루었고, 무면허 치과 의사가 순회하면서 진료를 했다.³⁴⁾ 그리고 동시에 1930년대 초반부터 영세한 고무공장 등이 밀집해 있었다. 이른바 고무공업의 메카가 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었다. 재일코리안은 자영업에 진출했고, 고무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은 지연·혈연에 의해 유입되어 채워졌다. 어떻게 보면 건강은 부차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족적, 계급적 차별은 일상의 건강에 그리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상의 차별이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했다. 여기에는 생활공간의 핵심인 주택문제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³⁵⁾ 일제강점기 재일코리안은 집을 구하기 위해 일본인의 이름을 차용하거나, 일본인 보다 높은 집세와 임대조건을 수용했다. 그리고 일본인 집주인은 집단합숙, 건물의 지저분한 사용, 임대료의 체납, 계약위반 등을 들어 임대를 거부하고 퇴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주택쟁의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셋째, 일제 경찰은 1930년대 중반에는 이 지역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판매하는 조선시장과 조선인 요리집, 음식점의 단속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³⁶⁾ 조선인의 건강이 아닌 차별이 전제된 통제 구조가 작용한 현상이다.

분명 이카이노의 재일코리안을 비롯해 조선에서 도향한 조선인에 일본

33) 高權三, 『大阪と朝鮮人』, 東光商會書籍部, 昭和13年, 27쪽.

34) 崔碩義, 「大阪, 小林町朝鮮部落の思い出」, 『在日朝鮮人史研究』 20, 1990, 51쪽.

35) 일제강점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정혜경, 「일제 강점기 ‘조선 부락’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 『일본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10).

36) 「大阪府の在住鮮人同化方策に就て」, 『特高月報』 1936年 6月.

행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다. 이런 조선인은 토건 노동자, 각종 직공, 광산노동자 등이 되었다. 일본인 노동자가 기피했고, 한층 저렴한 노동력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인의 경우는 노동이 가능한 청장년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로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극빈자층에 속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에게 생활의 고통은 질병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교에 의탁하기도 했다. 재일코리안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병원 가기와 함께 종교를 통해 일상적 치료가 진행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일코리안의 질병은 귀국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한 사실이다. 당시 공핍으로 인한 질병은 주로 각기병이었다. 각기병에 걸렸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도항 이후에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다. 작업 중에 안전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든지, 과중한 노동을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게 된 자도 있었다.³⁷⁾

정신세계에 관해서도 재일코리안은 일본인과는 다른 것을 유지하고 있었다. 알려져 있듯이 조선 크리스트교회, 조선 불교사원과 천도교의 중무원이 일본내지에도 설립되어 포교를 하고 있었다.³⁸⁾ 민중에게 침투했던 조선의 샤머니즘도 일본내지에 들어와 있었다. 재일코리안사회 속에는 무당도 있고 병의 치료와 행운을 부르기 위한 곳이 성행하고 있었다.³⁹⁾

…… 전인류가 가장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다.
…… 인간생활은 평범한 사무도 아니고 흥투한 일시의 위정도 아니다. 일정한 과학적 방도를 통하여 규정되는 실천이며 투쟁이다. …… 생활의 과학화는 고사하고 미신이 발호해야 …… 질병에 걸리면 의약을 구하기 전에 복가를 차쳐 곳을 치고 민중생활이 불안함이 그 원인을 구명하고 구제

37) 김광열, 『한인의 일본 이주사 연구』, 208쪽.

38) 도노무라 마사루 저, 신유원·김인덕 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101쪽.

39) “생활을 과학화하자”, <民衆時報>, 1936년 6월 21일.

이 방도를 생각하기 전에 기묘묘한 각종의 사교를 창설하여 정당히 양양되는 민중의 불평불만을 …… 말살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 유인부설로서 인심을 지배하는 사교에 이르기까지 …… 미신사교를 타파하는 동시에 과학사상을 보급하고 생활을 과학화하자! 과학은 힘이다. 우리의 생활안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과학으로 무장하여야 한다(원문 그대로 : 필자)⁴⁰⁾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타개책을 세울 것과 미신타파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대인으로서 비과학적 허무맹랑한 미신에 몰두하는 자가 만다. …… 미신을 타파하지 못하는 자 잇슴과 동시에 …… 미신은 자연에 대한 공포애경에서 근원하였산는데 …… 근대미신의 발족은 생활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역점복무로 위엄하는 무리를 박멸할 것을 제창한다. …… 동포제현의 순결한 양심에 호소한다.

- 一. 무녀점술자는 사회인심을 좀먹는 기생충이다.
- 一. 일시라도 속히 이 기생충을 구제하지 안으면 일신을 망치고 일가를 멀게 한다.
- 一. 이 기생충을 구제하는 약은 일반인사 특히 부녀자의 자각에 있다.
- 一. 우리는 이 기생충에 대한 사회적 제재기관을 가지자.
- 一. 직장의 절문여성은 솔선하여 이 기생충 박멸의 선구자가 되자.
- 一. 전조선민중은 계몽운동 특히 미신타파에 참가하자.(원문 그대로 : 필자)⁴¹⁾

특히 무당은 사회 인심을 좀먹는 기생충이라고 해서 ‘미신타파’를 통렬히 호소하는 투서도 게재되어 있었다. 샤머니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 일상의 관혼상제 등의 의례도 재일코리아의 건강과 관련해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일본에서 죽은 조선인이 시신 그대로 고향으로

40) “생활을 과학화하자”, <民衆時報>, 1936년 6월 21일.

41) “미신을 타파하자”, <民衆時報>, 1935년 8월 1일.

옮겨져서 매장된 경우도 있었다.

…… 가장 진보된 일이라도 생활개선을 제외한다는 법은 없스니까,
 …… 조선인 노동자 상민들의 막대한 리해문제로 해서 나는 화장(火葬)려
 행을 제창한다. 깨끗한 화장 …… 토장만 못하단말이나. …… 장사치른다
 고해서 시체들은 반해서 고향에 갔다가 일터도 일허바리고 다시 일본에
 나오지도 못해서 기겁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만흔지일우해일수도 업
 다. …… 토장에서부터 해방하지 안으면 한 개의 시체로해서 몇개의 생명
 이 괴아선상에서 위협을 받는다. …… (원문 그대로 : 필자)⁴²⁾

이렇게 초상을 치르다가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매장
 보다 화장이 위생적이라는 사고도 당시에는 존재했다.⁴³⁾

오사카 쓰루하시 지역 속 재일코리안은 정주와 함께 새로운 일본에서
 의 삶을 시작했다. 이들에게 쓰루하시 지역은 고통을 달래주는 공간으로
 일상을 지배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에 노출되는 재일코리안에
 게는 절대적인 공간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해방의 공간이기도 했다.

Ⅲ. 재일코리안의 공간과 음식, 건강

1. 조선촌의 먹거리

공간으로서의 오사카 쓰루하시 지역은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 속의 다
 양한 어려움과 삶의 허무까지 해소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다른 어떤 곳보
 다 일상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⁴⁴⁾ 여기에서는 ‘조선식’으로 밥을

42) “PS生 : 火葬을 勵行하자”,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43) “火葬을 勵行하자”,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44) 高權三, 『大阪と朝鮮人』, 92쪽.

먹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

1930년대를 오사카에서 잠시 보냈던 고권삼은 이카이노의 생활문화의 일상, 생활 물자를 얻기 위한 조선인을 위한 시장이 북적거리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 가게 앞에는 조선산 물건이 여러 가지 진열되어 있다. 특히 조선인들이 항상 신는 고무신, 조선인의 식료품 중 가장 좋아하는 명태 더미는 그리운 조선을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바깥쪽 길에는 내지인의 가게도 있어 경성의 남대문시장까지는 안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 동대문시장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쪽 길에는 갓 삶아낸 돼지고기, 순대, 돼지머리 등이 나와 있고, 개성의 시장과 비슷하여 식료품뿐 만 아니라 포목점, 잡화점, 생선 가게, 푸줏간 등 각종 가게가 섞여 있는 것은 해주의 시장과 닮았다.(강조 : 필자)⁴⁵⁾

(2) 그들은 역시 어릴 때부터 입어왔던 옷을 입어보고 싶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 조선시장이 아니면 용이하지 않다. 조선시장은 그들에게 있어 어디까지도 필요한 곳이다. 오사카 부 혹은 오사카 시 당국은 조선 사람의 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의견으로는 부나 시 당국이 이 시장들을 보조하든가 혹은 공설 시장으로 승격시켜서 신설하든가 해서 세계 제8위의 대 오사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⁶⁾

이카이노는 조선의 일상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특히 명태, 돼지머리, 순대 등과 각종 생선 등의 다양한 조선 음식을 보고,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역시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음식을 원한다. 그리고 이른바 ‘조선식’으로 살기를 원했다. 문제는 일제의 통치 구조는 조선인의 독자적인 공간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재일코리안은 먹거리를 통해 문화와 건강을 지켜 나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45) 앞의 책, 33쪽.

46) 앞의 책, 36쪽.

일상의 ‘조선식’ 음식이 갖는 건강을 지켜주었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조선식’ 먹거리가 존재했다. 일제강점기 오사카에서 살았던 최석의(崔碩義)는 즐겨 먹던 음식이 가오리회, 소곱창, 시래기국, 깍두기, 물김치, 비빔밥 등이었다고 했다.⁴⁷⁾ 실제로 재일코리안에게 김치는 중요했다. 김장철을 맞이하여 오사카(大阪)소비조합 도부(東部)지부는 배추(白菜)의 공동 구매를 통해 양질의 물건을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자 적극 활동했다. 김장은 조선인에게도 중요한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다른 어떤 진수성찬(珍羞盛饌) 보다도 김치 깍두기가 밥상에 올라야 밥맛이 나는 것이 조선의 정서(情緒), 입맛이었다.

만반진수가 다반상에 오를지라도 김치깍두기가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사람의개는 공통되는 생각인 것이다. 조선김치는 조선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조선료리의 지위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오 민중적이오 또 경제적이다.(원문 그대로 : 필자)⁴⁸⁾

김치 말고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조선 음식이 카라시멘타이고(辛子明太子), 즉 명란젓이었다. 명란젓은 원류가 부산으로 명태 알을 갖고 만든 음식인데, 18세기부터 유명했다. 이것을 부산의 일본인이 일본에 소개했고 전후에 하카다(博多)에서 만들었다. 물론 재일조선인은 이주와 함께 이것을 일본 내에 갖고 들어와서 먹기 시작했다.⁴⁹⁾

둘째, ‘조선식’ 음주문화가 존재했다. 조선촌이라는 공간은 조선인의 별천지로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밥은 별세계였다. 밑조한 막걸리가 있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가 있고 술이 취하면 고향의 민요가 흘러 나왔다. 일본의 학정을 한탄하

47) 崔碩義, 「大阪, 小林町朝鮮部落の思い出」, 59쪽.

48) “김장채를 압두고 백채공동구입”, <民衆時報>, 1935년 11월 15일.

49) 鄭大聲, 「日本の食文化と「在日」, 『環』 11, 2002年 秋, 282쪽.

는 청춘가가 나오면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소상팔경, 춘향가 등 아
는 노래 전부가 흘러 나와 저녁 여섯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 두 세
시까지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강조 : 필자)⁵⁰⁾

조선촌에는 막걸리가 일상적으로 존재했다. 조선인이 사는 부락이 형
성되고, 거기에서 판매되었던 것이 이 막걸리였다. 발각되지 않으면 주세
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싸게 만들어졌고 재일코리안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였다.⁵¹⁾

셋째, 일상의 향락적 모습도 존재했다. 조선요리집(金光園, 東萊亭, 慶
花館, 玄風館, 達城館 등)이 그것이다. 이 공간은 망년회와 신년연회를 이
용해 대규모로 손님을 유치했다.⁵²⁾ 당시 일부의 조선인은 조선요리점에
가서, 조선에서 받은 돈이나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소위 ‘하류병’에
걸려 건강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⁵³⁾ 실제로 조선인 청년들은 일본에서
밤이 늦도록 음주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일상생활의 절제의 의
미를 왜 일본에 갔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서, 조선에 있는 부모님과 계속
되는 조선의 흥년, 그리고 국제 정세 등을 거론하면서 자숙을 유도했다.⁵⁴⁾

50) 金鍾在 述, 玉城素 編, 『在日韓國人一代』, 圖書出版社, 1978, 104쪽.

51) 탁주 밀조와 관련해서 각 부락에서 검속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협화회가 대
부분의 조선인을 조직했던 1939년경이었다(樋口雄一, 『協和會-戰時下朝鮮人統制
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1992, 참조).

52) <民衆時報>, 1935년 12월 15일; <民衆時報>, 1936년 1월 1일.

53) “경판신조선인문제좌담회”, <조선일보>, 1936년 4월 29일.

54) “…… 근로계급의 청년들은 멋흥을 두고 취흥이 도도하야 야심토록 …… 일시
의 환락에 전수입을 탕진하고 도라온다. …… 자폭자기적 태도가 그들로 하여
금 이러한 무절제한 생활을 감행하게 하는 것이다. …… 일상생활에 잇서서 가
계나 기타 모든 생활방식에 잇서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 나가야 할 것
이다. 근로계급의 청년제군! 제군이 현해탄을 건느게 된 것을 무슨 까닭인지 생
각하라. 고국에 잇는 제군의 부모형제는 연년의 흥작으로 기안선 상에서 해매
고 잇슴을 전하지 안는가. 이제야 군축회의도 그 결렬을 전하야 세계의 위기를
그 고조에 달하려 한다. 제군은 먼저 절제잇는 생각을 하라.”(원문 그대로 : 필
자)(“사실절제 잇는 생활을 하라!”, <民衆時報>, 1936년 1월 11일.)

2. 일상의 위생과 건강

전술했듯이 1930년대 재일코리안은 독자적인 공간을 갖고 있었다. 그곳 중 하나가 오사카 쓰루하시 지역이었다. 이 쓰루하시는 일본 사회 속에서 취로와 거주 의 형태에서 보면 ‘하층적’이었다고 한다.⁵⁵⁾ 상대적 개념인 ‘하층적’은 지극히 제국주의적 표현이지만, 빈곤세대의 다수 존재, 불량주택 문제, 전염병의 발생 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이곳에 자주적인 조선인의 생존의 한 방법으로, 의료 공간이 마련 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재일코리안은 일상의 삶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民衆時報』의 다음의 자료는 그 대표적인 조선인의 일상 속의 위생과 건강을 실증하고 있다.

(1) <침수 후의 위생과 주의할 일 몇 가지>

…… 장마 때인데 수해까지 겹친 작금의 그 후에는 무엇보다도 습기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햇빛을 될 수 있는 한 잘 받아 드려서 방내를 건조시키는 것은 …… 수침 후의 정돈에 주의하여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 더러운 돛자리는 세균의 소굴이다. …… 마루 밑에는 많은 톱밥을 …… 수침된 식물은 조금도 아낌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 특별히 음식물에 주의하여 과격한 노동 끝에 냉수나 빙수를 먹거나 또는 상한 과일이나 쉬기 시작하는 음식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 염질이 유행할 때는 서로 나누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물을 담은 그릇에 양젓물을 약간 넣어서 …… 변소와 집 주위에도 물 한 되에 생석회 두 홉쯤 넣어서 뿌리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모기와 파리들도 이러한 불결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⁵⁶⁾

55) 外村大, 「大阪朝鮮無産者診療所の闘い」, 114~116쪽.

56) “(가정과 부인)침수후의 위생과 주의할일몇가지”,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2) 이제 나는 유리공장 노동자의 생활을 동무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금 내가 있는 **유리공장의 동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 공장주는 ……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 아침 여섯 시부터 저녁 다섯 시까지 열한 시간 중 사십오 분의 점심시간 …… 이 공장은 주식회사의 탈을 쓰고 …… 조선노동자나 견습공을 합부로 확대한다. ……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 (강조: 필자)⁵⁷⁾

재일코리안의 오사카 쓰루하시 지역의 일상은 위생, 건강과 직결된 삶의 모습이 확인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인용한 「침수 후의 위생과 주의할 일 몇 가지」라는 『民衆時報』의 기사는 조선인의 일상 가운데, 특히 위생과 관련해서 침수 이후 대처 방식에 주목했다.⁵⁸⁾ 구체적으로는 습기를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햇빛을 잘 받아 건조시켜 질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러운 돛자리는 세균의 온상으로, 다다미 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루 밑에는 침수 후는 톱밥 뿌릴 것을 권했다. 그리고 침수된 곳의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다. 음식물을 넣었던 그릇도 양젓물을 넣어 끓일 것과 변소와 집 주위에 풀과 석회를 섞어 뿌려 둘 것을 권했다. 그리고 모기와 파리 박멸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최창선의 「우리의 공장생활」이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되듯이, 1930년대 중반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노동현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조선인 공장 노동자의 생활은 먼저 유리공장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⁹⁾ 구체적으로 공장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11시간 가운데 45분의 점심시간 말고도 일을 했다. 임금은 초급이 70전으로, 1년이 넘어도 1전도 오르지 않았다. 공휴일 임금도 8, 9개월이 넘어 노동자가 요구해야 주는 식이었다. 작업의 과정에서 병을 깨뜨리면 인간 이하의 대접을

57) “최창선 : 우리의 공장생활”,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58) “(가정과 부인)침수후의 위생과 주의할일몇가지”,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59) “최창선 : 우리의 공장생활”,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받는데, 특히 조선인 견습공은 함부로 다루어졌다.⁶⁰⁾

셋째, 여성 노동자의 건강문제 중 주목되는 것이 재일코리아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의 현실 이었다. 한 가지 예로 당시 간사이(關西)지역에서 조선인 여성노동자 문제는 조선인 해녀문제로 확인된다. 조선인 해녀가 일본에 들어간 것은 1931년⁶¹⁾으로, 문제는 생산된 수확물의 1/4도 주지 않는 임금의 현실이었다. 실제로 천초⁶²⁾의 시세가 좋은 1935년에도 가격을 10전으로 정해 놓고 1전도 올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50명의 제주 해녀들은 중간 관리인격인 주재원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15일 기다려 1전을 올려준다는 통고를 받았다.⁶³⁾ 이에 대하여 제주해녀들은 이 가격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고 파업을 했다.⁶⁴⁾ 결국 일상적으로 조선인 해녀도 노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단결을 통해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넷째, 정신적 차원의 조선인의 건강문제는 『民衆時報』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건강 관련 주된 문제는 일상의 가정생활, 이혼과 교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속에서 보인다. 먼저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문답 코너에서 이혼상담 내용이 그것이다. 17년 동안 결혼 생활한 부인이 남편이 개가를 권한다는 말에 고민을 털어놓는데, 여기에 대해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고 권했다. 이 문제는 조혼으로 인한 희생으로 표현하고, 결혼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고 당신의 남편이 아주 당신이 싫었으면 지금까지 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신의 남편에게 성의를 다하면 남편도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⁶⁵⁾ 이혼이 성인의 일상에

60) “최창선 : 우리의 공장생활”,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61) “일해녀 : 원정해녀군의 직업전선담(1)”, <民衆時報>, 1935년 9월 15일.

62)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63) “일해녀 : 원정해녀군의 직업전선담(1)”, <民衆時報>, 1935년 9월 15일.

64) 문제는 이런 사실이 지역의 동사무소에 보고되었고, 결국 이들도 제주해녀에게 압제를 가하자 제주해녀는 귀항을 선택했다. 이렇게 되자 다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제주 해녀는 승리했다(“일해녀 : 원정해녀군의 직업전선담(1)”, <民衆時報>, 1935년 9월 15일.).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심한 요소를 제공했다.

다섯째, 재일코리안의 자주적인 의료행위를 볼 수 있다. 조선인 조합원의 출자로 진료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⁶⁶⁾ 우선 조선인의 독자적인 조직으로서는 1931년 2월에 창설된 오사카시 기타구(北区) 소재의 오사카조선무산자진료소가 있다.⁶⁷⁾ 이 진료소는 의사 2명과 간호사, 약제사 모두가 조선인인 체제로 의료비도 저렴했기 때문에 멀리에서 기차나 전철을 타고 오는 조선인도 포함해서 매일 80명의 환자가 찾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 진료소는 1년도 존속되지 못하고 폐쇄되었다.⁶⁸⁾ 그렇지만 그 후에도 조선인들 사이에서 진료소 설치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히가시나리(東成)진료소의 경우 이카이노에 있었는데, 1935년 12월 14일 개축 기념으로 무료 진료를 하기도 했다.⁶⁹⁾ 한신(阪神)소비조합에서도 의료부 설치의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실제로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다.⁷⁰⁾ 이와 함께 『民衆時報』의 오사카 재일코리안의 의료, 광고의 내용을 보면, 창간호부터 다수의 한약방, 약방 그리고 병원 광고가 보인다. 태창상회, 보성당약국 그리고 선당한약국 등의 광고가 그것이다.⁷¹⁾

- 약은 우리 약이 잘 듭습니다.(『民衆時報』, 1935년 8월 1일)
- 동서의약합자회사(『民衆時報』, 1935년 6월 15일)
- 주익순의원(『民衆時報』, 1935년 9월 15일)
- 제일의원(『民衆時報』, 1935년 9월 15일)
- 태창상회 한약방(『民衆時報』, 1935년 6월 15일)

65) “딱한 사정”,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66) 도노무라 마사루 저, 신유원·김인덕 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122쪽.

67) “오사카재류조선인무산자진료소”, <조선일보>, 1931년 2월 21일. 일반적인 내용은 外村大, 「大阪朝鮮無産者診療所の闘い」를 참조.

68) “오사카무산진료소 단체경영을 금지”, <조선일보>, 1931년 9월 20일; “오사카조선무산자진료 재산관리회 해산”, <조선일보>, 1932년 1월 20일.

69) “개축확장한 동성진료소”, <民衆時報>, 1935년 12월 15일.

70) <無産者同盟ニュース>, 1931년 11월 26일(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소장).

71) <民衆時報>, 1935년 6월 15일.

- 보성당약방(『民衆時報』, 1935년 6월 15일)
- 남선당한약국(『民衆時報』, 1935년 6월 15일)
- 우리상점실비약품부(『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 춘헌당약방(『民衆時報』, 1936년 1월 1일)
- 용천당치료원(『民衆時報』(新年特輯1), 1936년 1월 1일)
- 화한약방(『民衆時報』, 1936년 4월 11일)

이런 광고를 통해 보면, 동서의약합자회사는 대표가 김필원으로 민우당약방이 확장한 것이라고 한다. 김필원은 창간호⁷²⁾에 발행을 축하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후 동서의약합자회사는 지속적으로 광고를 『民衆時報』에 실었다. 이와 함께 주익순의원은 원장이 주익순으로 경성의학사로 내과, 소아과, 외과를 개설하고 있다. 제일의원은 원장이 이규흥으로 그는 큐슈의학사로 내외과, 소아과, 화류병⁷³⁾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를 두었고 입원실이 있었다. 태창상회는 약재상으로 이재호가 대표였다. 보성당약방은 고베에 있었고 안갑형이 주인이었다. 남선당한약국은 신흥종이, 춘헌당은 이익상이 각각 주인이었다. 특히 우리상점실비약품부는 발매원이 이카이노에 있었고 촉탁의원으로 주익순의원과 중앙의원을 두었다.⁷⁴⁾ 화한약방은 박창희가 주인으로 침술도 겸해서 진료했던 기록이 확인된다.⁷⁵⁾

여섯째, 위생문제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여 일상 속의 적극적인 건강한 생활을 강조했다. 「구약하기 전에 병 안들게」에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운 생활가운데서도 병고에나 시달리지안코 몸성히지낼 도리를 하
였으면조케습니다. 말하자면 병들어서 약을찾는것도조흐나 약을찾기전
에 병들지안토록 주의하여야 되겡습니다. 그야 물론 병들고 심해서 병드

72) <民衆時報>, 1935년 6월 15일.

73) 성병을 칭한다.

74) <民衆時報>, 1935년 7월 15일.

75) <民衆時報>, 1936년 4월 11일.

는사람이야업겠지요. 그러나 좀더 주의하면 병들지 안케될새가만치요. 네 의사이 말하는 위생에 주의하여야 되겠다는말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비단 의약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보법으로 나아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⁷⁶⁾

문제는 조선이 아닌 일본에서 약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곱째, 재일코리안은 일상의 건강과 위생문제에서 나아가 과학을 통해 일본 속에서 반일조직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일코리안은 근대 일본 사회 속에서 ‘과학’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도 했다.

……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학의 대중화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이 과학의 수준에까지 조직화하고 또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수행되게 되면 거기에는 철성갓튼 반동의 중압이 들어싸고 비대중적 제세력이 각양 각종의 수단으로 위협으로 방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사실이다. …… 우리 근로대중은 엇더한 의미에 잇서서든지 엇던 기회를 포착하여서든지 대중을 조직하고 가기를 조직할여는 …… 힘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과학을 이해할만한 수준에 까지 교양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⁷⁷⁾

이상과 같이 오사카 쓰루하시 지역의 재일코리안은 조선인 중심의 공간에서 자주적 의료공간도 갖고 건강과 위생문제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해소법도 공유하고 있어, 당시 조선인 사회의 진보성을 보여주고도 있다.⁷⁸⁾

76) 이 글은 남선한당약국의 신흥종의 글이다. “구약하기전에 병안들게”, <民衆時報>(新年特輯1), 1936년 1월 1일.

77) “과학의 대중화와 근로민중의 생장”, <民衆時報>, 1936년 4월 11일.

78) 한편 오사카부 내선협화회에서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업도 진행되었다 (杉原薫·玉井金吾編, 『大正/大阪/スラム』, 新評論, 1986, 179쪽).

IV. 맺음말: 재일코리안의 일상과 건강

본 연구는 1930년대 오사카의 쓰루하시라는 공간에서 도항 이후 재일코리안의 건강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大阪と半島人』, 『民衆時報』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은 제국의 통제 아래 도항했고, 그들은 개별적으로 정착하다가 집단화되었고 정주의 공간을 마련,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부에 조선촌을 형성해 갔다. 대표적인 정주 공간 오사카 쓰루하시 지역은 이가 이노와 함께 정주 재일코리안의 조선촌이 되었고, 일상의 건강이 유지되는 공간이었다.

둘째,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일본 사회 속에서 존재한 일상의 반영이었다. 동시에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일본에서의 건강, 건강정책과 유관하다.⁷⁹⁾ 문제는 차별의 대상으로 재일코리안은 공간적 제한의 존재로 그 모습은 소수자로 귀결되어 절대 다수가 질병에 노출되었다.

셋째, 『大阪と半島人』, 『民衆時報』를 중심으로 본 재일코리안의 1930년대 일상의 모습 속에는 건강의 다양한 요소가 존재했다.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존재한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 재일코리안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역사적 규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의학적인 수치를 통한 재일코리안의 1930년대 모습은 ‘양호’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제국의 통치 아래 도항했던 조선인의 일본 내 존재는 왜곡과 좌절의 틀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쓰루하시라는 공간 속 정주하고 삶을 영위한 재일코리안에게 건강은 부차적이었는지도 모른다. 생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1930년대 쓰루하시 재일코리안의 정주와 건강은 현실의 구조

79)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 구도가 필요하다.

가 작용하는 지점이었다. 일제의 통치와 조선인 사회의 구조가 중층적인 요소였음은 물론이다. 그 가운데 재일코리안의 건강은 일상 속에서 유지되었다. 실제로 재일코리안은 병원과 약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를 시도했다.

본고는 건강을 유지한 재일코리안의 모습을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확인했다. 재일코리안은 고향 사람이 함께 하는 삶의 안정감, 조선식 먹거리를 통한 즐거움, 막걸리를 통한 행복함, 적극적인 질병 치료하기, 정신적 스트레스의 대중적 치료 등 여러 형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일본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⁸⁰⁾

80) 최근 다수의 디아스포라, 해외 정주 코리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태적 개념적 연구로 주체의 일상의 모습에는 관심이 부여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다양한 지역과 시점에서의 재외코리안, 재미코리안, 재중한인, 재일코리안 등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동시에 1930년대의 일본 오사카 지역신문의 건강과 위생 관련 기사 분석과 통계 처리 등은 별도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民衆時報>

<無産者同盟ニュース>

神戸市社會科, 『在神半島民族の現状』, 1927.

大阪市社會部, 『鶴橋中本方面に於ける居住者の生活狀況』 1928.

_____, 『本市に於ける朝鮮人の生活概況』(1929),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2, 三一書房, 1975.

内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狀況』, 1930.

「朝鮮人移住対策要目」(1934),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3, 三一書房, 1975.

「大阪府の在住鮮人同化方策に就て」, 『特高月報』, 1936年 6月.

「朝鮮人ノ内地渡航制限ニ関スル件」(1938),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集成』 3, 三一書房, 1975.

高權三, 『大阪と朝鮮人』, 東光商會書籍部, 昭和13年.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www.who.int)

<연구논저>

다비드 르 브르통 저, 홍성민 역,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동문선, 1990.

이종찬,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명경, 1995.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6.

도노무라 마사루 저, 신유원·김인덕 역,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 김광열, 『한인의 일본 이주사 연구』, 논형, 2010.
- 정혜경, 「일제 강점기 ‘조선 부락’의 형성과 사회적 역할」, 『일본 한인의 역사』 (하), 국사편찬위원회, 2010.
- 고정자·손미경, 「한국문화 발신지로서의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글로벌문화콘텐츠』 5, 2010.
- 고미숙, 『위생의 시대』, 북드라망, 2014.
- 김인덕, 「재일코리안의 민속·생활문화의 변용」, 『재일코리안의 생활 문화와 변용』, 선인, 2014.
- 김인덕, 「1930년대 중반 오사카 재일조선인의 삶과 상호부조-『民衆時報』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용삼 외,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소명출판사, 2016.
- 樋口雄一, 「在日朝鮮人論考」, 『近代民衆の記録-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 1978.
- 金鍾在 述, 玉城素 編, 『在日韓國人一代』, 圖書出版社, 1978年.
- 金蒼生, 『わたしの猪飼野』, 風嬢社, 1982.
- 佐佐木信彰, 「1920年代における在阪朝鮮人の労働=生活過程」, 『大正/大阪/スラム』, 新評論, 1986.
- 杉原薫・玉井金吾 編, 『大正/大阪/スラム』, 新評論, 1986.
- 崔碩義, 「大阪, 小林町朝鮮部落の思い出」, 『在日朝鮮人史研究』 20, 1990.
- 外村大, 「大阪朝鮮無産者診療所の闘い」, 『在日朝鮮人史研究』 20, 1990. 10.
- 水野直樹, 「朝鮮總督府の内地渡航管理政策-1910年代の労働者募集取締-」, 『在日朝鮮人史研究』 22, 1992. 9.
- 樋口雄一, 『協和會-戰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社會評論社, 1992.
- 山脇啓造, 『近代日本の外国人労働者問題』, 明治学院国際平和研究所, 1993.
- 鄭鴉英, 「路地裏から發信する文化」, 『環』 11, 2002年 秋.
- 鄭大聲, 「日本の食文化と「在日」」, 『環』 11, 2002年 秋.

- 高贊侑, 「朝鮮市場からコリアタウンへ」, 猪飼野の歴史と文化を考える會 編,
『ニッポン猪飼野ものがたり』, 批評社, 2011.
- 李節子, 『医療通譯と保健医療福祉』, 杏林書院, 2015.

Space movement and the settlement & health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 With focus on the situations of Tsuruhashi (Osaka) in the 1930’s based on the reports by the two public newspapers: “大阪と半島人” and “民衆時報” –

Kim In-duck*

The paper has examined how the health of the ethnic Korean residents in Japan had been preserved and maintained in Tsuruhashi in Osaka in the 1930s, based on the reports by the two papers: “大阪と半島人 (Osaka and Peninsula)” and “民衆時報 (The Bulletin of the People).”

First of all, the ethnic Korean residents in Japan sailed over to Japan under the domination of imperialism. They settled individually and built the town of the Joseon people centering around the major cities. Tsuruhashi - being the most typical area of domiciliation - functioned as the town of the Joseon people along with the city of Igaino and these were the places where the health of the Koreans were maintained.

Second, their health was the reflection of the people’s life in Japanese society. The health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clearly linked with the health policy and care. I do believe that this issue should be discussed in earnest. However,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as the minority were exposed to diseases in the area.

Third, based on the reports of the two papers - “Osaka and Peninsula”

* Chungam College

and “The Bulletin of the People” - there existed a variety of factors that guaranteed the health of the Koreans in the 1930s not from the viewpoint of ideologies but from that of the daily life. On top of that, the human quality of the Koreans at that time show us living in the present times the historical defining power.

Fourth, the medical value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during the 1930s were favorable but the presence of the Koreans in Japan was embroiled in a controversy with regard to distortion and frustration. It was because the top priority concern for those Korean residents in Tsuruhashi was always their survival.

Fifth, the period of the 1930s for the Koreans in Tsuruhashi was the point of realistic structure. The rule of the imperial Japan and the structure of Joseon were surely the multi-level factors. With that, the health condi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could have been sustained. In fact, Korean could have received the treatment of diseases by hospitals and drugstores. In this sense, the diseases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uld be newly discussed and is required to find the cure. Actually, curing diseases is similar to the reform of the daily life.

The paper confirmed the maintenance of health among the Koreans in Japan in their ordinary life. Friendship among the neighboring people, enjoying Korean food and traditional Korean wine, the active treatment of the illness, and the general cure of mental problems were all the reasons for their conditions. Recently, many of the diaspora and the migrated Koreans have been studied but most of them were static, drawing no public interests. Various regions and a variety of views are expected for the Korean residents in foreign countries.

Key words: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1930s, health, Tsuruhashi,
Osaka and Peninsula, The Bulletin of the People

필자 E-Mail: kid620827@hanamil.net

투고일 2019년 04월 03일 / 심사완료일 2019년 04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9년 05월 08일